



안숙선



정명희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굿 GOOD 보러 가자’

25일 남원서 ‘명품’ 공연... 안숙선 명창 · 정명희 전수자 등 참여

남원시는 25일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과 남원이 낳은 국가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 김청만 명고, 남원농악보존회 류명철 명인 등이 참여하는 ‘굿 GOOD 보러 가자’ 명품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지역 전통예술인 등 최고의 명인이 참여해 꾸미는 한국문화재단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78개 지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무사무려(無事無慮)란 주제로 명인들이 꾸며 선사하는 무대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 재난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바라는 기원며, 특별히 이번 무대는 한국문화재단 진옥섭 이사장의 맛깔 나는 해설과 함께 진행돼 공연을 쉽고 알차게 만날 수 있다. 진옥섭 이사장과 남원의 인연은 남원출신 전설의 훈공 조갑너 명무를 ‘어머니’라 불렀을 만큼 특별한 인연이 있으며, 그는 이번 공연에 조 명무와의 추억을 오롯이 담아서 국내 최고의 명인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분야 안숙선 명창과 김청만 명고, 남원농악보존회 류명철 명인, 남원살풀이 춤의 정명희 전수자와 조갑너 전통춤 보존회, 한량무 박영수 명무, 줄타기 명인 권원태, 채상소고춤의 명인 김문태와 한국의 집 예술단의 북춤이 신명나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재단은 올해부터 공연장을 찾기 힘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본 공연에 앞서, ‘찾아가는 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며, 일환으로 공연자들은 24일 혼불의 고장 사배 서도역을 찾아 ‘공연과 인생사진관’을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요’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25일 ‘한내들 여름밤의 콘서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 선율이 울려 퍼진다. 23일 완주군은 삼례 한내들 여름밤의 콘서트 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에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5일부터 3주간 토요일마다 열리며, 25일(1회차)에는 사물놀이와 김광석 노래모음, 8월 1일(2회차)에는 빛소리합창단과 가수 박희수의 공연, 8월 8일(3회차)에

는 트로트, 국악, 오페라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주출입구로만 통행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및 출입자 대장 작성, 선착순 50명으로 관람객 제한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삼례문화예술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삼례문화예술촌 유튜브 채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프로그램 일환으로 개설됐으며, 주말마다 이루어졌던 상설공연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관람은 무료로, 저녁 7시부터 선착순 50명 입장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문화관광과(063-290-2614)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삼례문화예술촌에 야간 경관을 조성함에 따라 관광객 및 군민에게 이를 홍보하고,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서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남원시는 23일 전북도와 남원 실상사 선재지에서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 보물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 보물 지정되나?

시, 전북도와 학술대회... 지대석 등 원형으로 제작 ‘정개 10년’ 명문 새겨져 역사적 가치 커

남원시는 23일 전북도와 남원 실상사 선재지에서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 보물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된 편운화상 승탑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고대사와 후백제사에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편운화상 승탑은 실상사 창건조인 홍척국사의 제자 편운화상의 승탑으로 910년에 건립됐으며, 지대석과 육개석 등이 모두 원형으로 제작된 특징을 보이고 무엇보다 정개 10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후백제 건국의 연호를 알려준다는 역사적·사료적 관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이원주 남원시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된 편운화상 승탑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권 문화리더’ 양성 과정 교육

전북문화관광재단, 28일까지 주제별 12명씩 총 36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지역 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전북권 문화리더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지역특화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제별로 12명씩 총 36명 뽑는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대학 전공자를 비롯해 문화 활동 경력자, 정부 및 민간기관의 문화인력양성 교육수료자, 지역문화에 관심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전북 도민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전북권 문화리더 양성과정’은 재단과 도내 3개 기초문화재단에서 공동주관으로 운영한다. 총괄을 맡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체 교육생들의 기초교육과 공통 교육을 진행하며, 전주문화재단(생활문화매개자양성), 익산문화관광재단(지역문화매개자양성), 완주문화재단(지역문화콘텐츠기획자양성)은 주제별 교육과정인 자기주도 프로젝트 현장실습, 현장답사, 주제별 이론교육 등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8월 14일 총괄 주관인 (재)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전북권 문화리더 입문과정’을 시작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공동이론교

육, 집중워크숍, 아트잡매칭데이 등 공통교육과 주제별 교육, 통합 및 심화 과정 등을 11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재단은 준비 단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을 설정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 대비 정원이 2배 이상 되는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숙박 교육은 당일교육으로 변경했다. 구해경 정책기획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참여에 부담감을 느낄 교육생들을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 유사시를 대비한 비대면 교육도 준비 중이다”며, “코로나19 대응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회 제10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에 따른 것으로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총괄 주관하며 전국 7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7~2018년, 2019~2020년 전북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4년간 총 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정책기획팀(063-23074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지역 여성 경제활동 지원... 미니취업박람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이 주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에 센터장)는 24일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준데 따른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함이다. 호남지방통계청 2020년 6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대비 0.3%가 상승했다. 또 취업자는 9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으며, 남성 취업자는 3,000명 증가한 반면 여성취업자는 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박람회 참여기업으로 (주)오디텍, (주)대인세이프티, (주)천희이엔지 등 4개 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면접에 함께할 예정이다. 더불어 채용예정은 있으나 당일 직접 참여가 어려운 6개 간접기업들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들의 재취업에 대한 기대와 구직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미니취업박람회는 직업교육훈련(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 양성과정) 수료생을 비롯한 관련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반드시 사전 참가신청을 하고 박람회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상주하고 있는 전문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를 통해 1:1 구직상담을 통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당일 현장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노무고충상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숙 구직자는 “코로나로 인해 여성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더 굳게 닫힌 느낌이었다”며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입사하고 싶었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도전할 예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에 센터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취업박람회를 온라인박람회로 개최했다”며 “예년때비 많은 기업의 참여는 아니지만 서로의 간절함을 담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미니취업박람회 운영 시 코로나19 관련 체온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참여자 간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풍선과 팝페라의 콜라보’

김제문화예술회관서 내달 8일

‘별론 & 팝 콘서트’ 펼쳐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풍선과 팝페라의 콜라보 여행 ‘별론 & 팝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풍선쇼와 애니메이션 음악 여행으로 별론 아티스트 임세준이 미술과 풍선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로 약 140cm가 넘는 초대형 풍선 퍼포먼스, 거대 아바타 인형과 함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미술&별론 쇼를 준비하고, 팝 소프라노 유명지는 겨울왕국 OST ‘Let it go’,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7월 2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25일 ‘찾아가는 상설공연’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이명준)는 25일 오후 7시부터 춘포역에서 찾아가는 상설공연 ‘함께해요 생활문화Day’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차역 춘포역에서 아라리나(난타), 나르샤(통기타), 행복열차색소폰(색소폰), 아울뜰(장구난타) 등 동호회가 출연하여 시민과 함께 추억을 떠올리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펼친다. 이명준 이사장은 “익산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문화를 즐기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